

복수

Rache

1. 어원 및 개념 정의

고고지독어 *rähha*, 중고지독어 *räche*에서 발전한 복수 Rache의 어원은 Recht(법), rechten(다투다), richten(바로잡다, 어떠한 방향을 향하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언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이 단어의 발전과정이 공적인 법 집행과정과 공동체 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갈등해결, 처벌, 손해조정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복수는 누군가가 예전에 자신에게 가했던 피해와 동일하거나 더한 것을 그 사람에게 되갚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복수의 개념은 오늘날까지 보복(Vergeltung)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Vergeltung의 원래 의미는 주관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개인적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공평한 손해 조정을 뜻하는 것이었다.

2. 문학에서 복수 모티프의 기능

복수 모티프가 작품에 부여하는 것은 복수의 토대가 되는 사전 사건의 구성, 그리고 복수의 계획과 그 실천 과정에서 조성되는 강한 긴장감, 비밀에 가득 찬 분위기로, 작품의 흡입력은 이 모티프를 통해 강화된다. 복수의 토대로서 개인의 심리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복수 행위의 출발점으로 가장 큰 동기는 모든 형태의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다. 복수는 당사자가 직접 행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힘없는 희생자인 당사자를 대리해 다른 사람이 대신 행하기도 한다. 복수 모티프의 구조적 특징은 인물들을 대립적 관계에 세우는 것으로 강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며, 때로 복수를 하도록 자극하는 제 3의 힘 (신탁이나 유령, 꿈 등)이 작용하여 작품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복수를 모티프로 한 전형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감정적으로 깊은 상처를 주는 개인적 명예훼손이 발생한다.
- 2)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가 이루어진다.
- 3) 복수 계획의 초안이 작성된다.
- 4) 복수 계획이 실행된다.

5) 결말은 대부분 무의미한 승리이다.

이 같은 전형적 줄거리는 대부분 폭력 행위의 세밀한 묘사, 그리고 공격자-희생자의 도식적 구성으로 자주 나타나며 복수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만든다.

3. 모티프 유형

- 1)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 2) 육체적인 위해를 되갚아주기 위해
- 3) 경제적 피해 · 손실을 보복하기 위해
- 4) 재판결과에 불복, 불만 등에 의해
- 5) 사랑의 배반에 대한 복수

뒤렌마트의 『노부인의 방문』은 자신을 과멸로 몰고 간 한 남자를 돈의 힘으로 응징하는 복수를 그린다. 그러나 문학 작품에서 표면상의 이러한 복수 행위는 그 자체에 대한 흥미본위 보다는 복수를 행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 또는 인간의 헛된 욕망에 대한 재성찰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모티프 기능을 갖고 있다.

- 6)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한 복수

복수는 모든 형태의 부당함에 대한 저항행위이며 당한 자의 정의구현 명목으로 수행된다. 클라이스트의 『미하엘 콜하스』는 권력을 가진 귀족의 부당한 횡포에 저항하는 복수를 보여준다.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실추된 명예회복
	육체적인 위해를 되갚아주기 위해
	경제적 피해 · 손실을 보복하기 위해
	재판결과에 불복
	사랑의 배반에 대한 복수
	탄압으로 인한 육체적, 경제적 피해
과정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복수 (육체적 가해, 살해, 경제적 복수 ...)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전모를 깨닫고 복수를 취소
	복수 행위에 대한 성찰

	뜻하지 않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
	배반 당한 자의 불행한 삶
	봉기, 모반
결과	복수의 목적 달성, 상대방에 받았던 피해를 보복
	자신을 포함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의 파멸 (죽음)
	사회관습, 시대의 도덕관, 정의관 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
	사회정의를 실현
	성찰을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남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미하엘 콜하스 Michael Kohlhaas』*

작가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Heinrich von Kleist (1777-1811)
장르	단편소설
생성년도	1810년
등장인물	미하엘 콜하스: 말장수 벤첼 폰 트롱카: 귀족 요한 나겔슈미트: 콜하스의 하인으로 콜하스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도둑질을 일삼음. 작센 선제후 루터

5.1. 내용 요약

근면과 정직으로 살아온 말장수 미하엘 콜하스는 말을 끌고 여행하던 중 귀족인 벤첼 폰 트롱카의 자의적인 저지로 출장길이 막힌다. 더욱이 이때 맡겨놓은 말이 노역으로 심하게 상하고 하인까지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콜하스는 드레스덴 법정에 고소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콜하스의 부인은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에게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보초의 과잉반응으로 창에 찔려 죽게 된다. 콜하스는 독자적인 복수를 계획한다. 콜하스는 하인들과 함께 트롱카 성을 공격하고 달아난 트롱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콜하스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여 마치 민병대와 같은 집단이 형성된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루터가 개입한다. 루터는 콜하스의 행위를 법을 무시한 행위로 부정하면서도 작센 선제후에게 콜하스가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사면해 줄 것을 요청한다. 작센 선제후는 콜하스가 새로운 재판을 받을

* 진일상(역): 버려진 아이 외, 책세상, 2005, 7-126쪽.

수 있도록 명한다. 한편 콜하스의 하인이던 요한 나겔슈미트는 콜하스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도둑질을 일삼던 중 통솔능력 부족으로 콜하스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 자신들을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 편지가 발각되고 콜하스는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이때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가 개입하여 콜하스가 자기 백성임을 내세운다. 결국 사건의 판결은 황제에게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작센 선제후는 콜하스가 자기 가문의 운명이 걸린 쪽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집요하게 그 쪽지가 든 주머니를 손에 넣으려 노력한다. 이 때문에 작센 선제후는 황제에게 콜하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황제는 소동을 일으킨 죄목으로 콜하스에게 사형을 명한다. 콜하스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작센 선제후의 불공정함에 분노하여 끝까지 복수를 하고자 결심하고 사형선고를 받아들인다. 콜하스는 사형집행 날 쪽지를 삼켜버린다. 이 과정에서 콜하스가 요구하던 것이 실행된다. 용커 벤첼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빼앗겼던 말도 다시 되찾게 되었으며 손해는 배상되었고 아들들은 기사가 되어 그가 추구하던 정의가 실현되었던 것이다.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 구조

- 유형: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한 복수
- 서사구조: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봉기하여 적극적인 복수를 행하고 그 결과 원하던 정의가 실현된다.

원인	탄압으로 인한 육체적, 경제적 피해
과정	파괴적 복수 (봉기)
결과	죽음 사회 정의 실현

6. 작품 목록

- 쉴러 Friedrich Schiller: 『돈 카를로스 Don Carlos』 (1787)
 클라이스트 Heinrich von Kleist: 『미하엘 콜하스 Michael Kohlhaas』 (1810), 『버려진 아이 Der Findling』 (1810)
 폰타네 Theodor Fontane: 『에피 브리스트 Effi Briest』 (1895)
 뒤렌마트 Friedrich Dürrenmatt: 『노부인의 방문 Der Besuch der alten Dame』 (1956)

7. 연계 모티프

갈등, 강간, 명예, 증오, 폭력, 배반, 과멸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갈등 + 명예 + 증오 + 배반 + 복수 + 과멸
스토리	권력 다툼 속에 갈등이 생기고 한쪽의 명예가 손상된다. 명예를 잃은 쪽은 증오심으로 복수를 계획한다. 복수 실현 과정에서 끌어들이는 인물이 배반하지만 배반자에 대한 응징과 원래 계획했던 복수가 실현된다. 그러나 결과는 양편 모두의 몰락이다.